

##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한국고대사 연구 과제와 몇 가지 재해석

Research Topics of Korean Ancient History via Epigraph and Mokgan and Reinterpretation about the Major Contents of Epigraph and Mokgan

---

**저자  
(Authors)** 노중국  
Noh Choong Koo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57](#), 2010.3, 5-44(40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57](#), 2010.3, 5-44(4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04479>

**APA Style** 노중국 (2010).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한국고대사 연구 과제와 몇 가지 재해석. 한국고대사연구, 57, 5-4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1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한국고대사 연구 과제와 몇 가지 재해석

노중국\*

- I. 머리말
- II. 금석문과 목간 자료의 수집과 정리
  - 1. 금석문 자료의 수집·정리
  - 2. 목간 자료의 수집·정리
- III. 해야 할 과제
  - 1. 금석문 개념의 내포 범위
  - 2. 관심의 확대
  - 3. 금석문과 목간 자료의 대중화
- IV.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
  - 1. 영천청제비 병진명·정원명
  - 2. 나주 북암리 목간의 水田·白田과 창녕비의 畚·白田
  - 3. 영일맹수리신라비의 '此七王等'에 대한 해석
  - 4.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봉안기
  - 5. 울주 천전리 乙卯銘의 '聖法興大王'과 追銘의 '其王與妹·王妃·太王妃'의 재음미
  - 6. 창녕비의 大一伐干과 봉평비의 下干支

### 국문초록

1970년 후반 이후 低濕地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목간들이 발굴되었다. 또 최근에는 미륵사서탑 사리봉안기나 포항중성리비와 같은 새로운

\*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 2009 『대가야의 정신세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공저) ; 2009 「백제의 구휼·진대정책과 '좌관대식기' 목간」 『백산학보』83

금석문도 출토되었다. 새로운 자료들의 출현은 한국고대사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금석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해 본 것이다.

금석문은 금속이나 돌에 새긴 글자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金文과 石文 이외에 토기나 기와 및 전돌에 새긴 글자, 나무 조각에 쓴 木簡, 고분의 벽과 漆器에 쓰인 글씨 등도 금석문의 개념 속에 모두 포괄시키고 있다. 이는 금석문의 본래의 의미를 모호하게 한다. 필자는 금속이나 돌에 새긴 것만 금석문으로, 나무에 쓴 것은 목간으로, 붓으로 쓴 것은 墨書로 부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에서 논농사는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삼국시대에 와서 더욱 확대되었다. 백제와 신라는 논에 대한 표기를 달리 하였다. 백제는 水田로 표기한 반면 신라는 畝으로 하였다. 답자는 신라가 만들어낸 글자이다. 이 답자는 통일신라 이후 논을 나타내는 글자로 보편화되었다.

영천청제비는 저수지 축조와 수리에 관련한 내용을 보여준다. 삼국이 저수지를 표기하는 방법은 달랐다. 7세기 이전 신라는 塢로, 고구려는 吐로, 백제는 池로 표기하였다. 7세기 이후에는 堤(隄)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한편 논에 물을 대는 시설은 汙라 하였고, 저수지의 물을 밖으로 빼내는 시설을 배굴리하였다. 이 배굴리는 고려시대 이후에는 水桶 또는 木桶으로 표기되었다.

영일냉수리신라비에는 ‘此七王等’이 나온다. 이를 ‘7명의 왕들’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等’은 복수의 의미로, ‘왕’은 ‘님’으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읽으면 ‘此七王等’은 ‘이 일곱님들’로 해석되어 이들은 왕이 아닌 것이다.

미륵사지西塔에서 출토된 사리봉안기에는 무왕의 왕비는 사탁적덕의 딸로 나온다. 이를 근거로 하여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공주를 허구의 존재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는 2명 이상의 왕비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선화공주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선화공주와 사타씨 왕후 모두를 왕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61년에 만들어진 창녕비에는 大一伐干이 나온다. 대일벌간은 특별한 공로를 세운 유력한 귀족들에게 주어지는 非常의 관등이다. 이 비상위가 만들어진 시기는 법흥왕이 대왕으로 격상된 535년 이후 진흥왕이 활발하게 정복활동을 한 551년 사이로

; 2008 「백제의 골족의식과 골족 범위」 『한국고대사연구』50호.(논문)

추정해 볼 수 있다.

〈울진봉평신라비〉에는 지방세력에게 준 관등인 外位의 하나로 下干支가 나온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봉평비가 만들어진 524년 당시에는 하간지가 가장 높은 외위라는 전제 위에서 신라의 外位制는 524년 이후 561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524년 당시 울진 지역은 신라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이 낮았다. 따라서 울진지역보다 위상이 높은 지역의 지방 세력들은 하간지보다 높은 외위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봉평비가 만들어진 시기에 외위제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6세기에 신라와 고구려는 자국의 왕을 대왕이라는 존칭으로 불렀다. 백제의 경우 2009년에 발굴된 사리봉안기에 무왕을 대왕으로 표기한 내용이 나왔다. 이로써 삼국이 모두 자국의 왕을 대왕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왕의 칭호가 대왕으로 격상됨에 따라 고구려와 신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또 신라와 백제는 대왕 아래에 제후왕을 설치하였다. 신라의 경우 울주 천전리서석 追銘에 갈문왕을 왕으로 표기한 것과 七支刀 명문에 백제가 왜왕을 侯王으로 표현한 것이 그 사례가 된다.

주제어: 금석문, 지방세력, 고위 관등, 저수지, 비상위, 논, 칠왕, 가공인물

## I. 머리말

문헌자료가 부족한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자료 부족의 갈증을 풀어주는 단 비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금석문 자료와 목간 자료이다.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 있던 금석문과 목간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한국고대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는 감동은 흥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석문이나 목간은 온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다. 때로는 풍상에 시달려, 때로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깎기겨

나 지워지기도 하여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히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의 안타까움은 무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새로운 자료는 동시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내용에는 기왕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적 논란의 과정을 통해 우리 고대사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지고 서술도 보다 체계화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와 신라 지역은 물론 백제 지역에서도 금석문과 목간 자료가 다수 출토되어 고대사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필자는 새로운 금석문과 목간 자료가 출토되었을 때 이를 판독하는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고대사학계가 수행해야 할 과제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 소견을 개진하고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금석문과 목간 이 보여주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두기로 한다.

## Ⅱ. 금석문과 목간 자료의 수집과 정리

### 1. 금석문 자료의 수집·정리

우리나라에서 금석문에 대한 조사와 수집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선조의 왕손인 李侯 형제는 신라, 고려, 조선의 유명한 금석문 약 300점의 탁본을 수집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大東金石帖』으로 펴냈고 또 목록과 소재지, 글을 지은 자와 쓴 자, 건립 연대는 『大東金石書』로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원 비석이 남아있지 않은 탁본도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한편 영조 때 金在魯는 고려, 조선의 탁본을 모아 『金石錄』을 편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금석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에 와서 청의 고증학의 영향을 받으면서부터이다. 서예가이면서

실학자인 완당 김정희는 종래 無學大師의 비석으로 알려진 북한산 비봉의 비석을 신라진흥왕의 순수비로 고증하고 『金石過眼錄』을 썼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금석학의 토대를 놓은 것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금석문은 청나라에도 많이 전해졌다. 그래서 청나라 劉喜海는 삼국과 고려시대 금석문을 모아 판독하고 이에 대한 고증을 묶어 1931년에 『海東金石苑』으로 정리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조선총독부는 6년 동안 우리나라 금석문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하여 탁본 1천여 점을 제작하고 판독한 후 그 결과를 1919년에 『朝鮮金石總覽』으로 간행했다. 이때 조선총독부의 금석문 조사 작업을 주도하였던 葛城末治는 한국 금석문에 대해 개설적으로 연구한 후 낙랑~고려의 주요 금석문에 대한 연구를 묶어 『朝鮮金石攷』를 펴냈다. 일제시기에 우리나라 학자에 의해 금석문이 발견되어 소개된 예로는 최남선이 1929년에 발견한 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를 들 수 있다. 이 비는 종래 남이장군비로 알려져 왔는데 진흥왕의 순수비로 확인됨으로써 신라의 영역이 진흥왕대에 함경남도 지역까지 미쳤음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해방 이후 새로운 금석문 자료들이 다수 출토되면서 금석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발견된 중요한 금석문 가운데 삼국시대의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해방 직후 발견된 것은 1946년의 「大丘戊戌銘塢作碑」, 1948년의 「百濟砂宅智積碑」 등이다. 1950년대에 발견된 것으로는 1956년에 제1비가 발견된 이후 1985년에 이르기까지 발견된 「慶州南山新城碑」 제1비~제9비를 들 수 있다. 1960년대에 발견된 것은 「癸酉銘阿彌陀三尊四面石像」과 「癸酉銘三尊千佛碑像」, 「延嘉七年銘金銅光背」, 「永川菁堤碑 丙辰銘 및 貞元銘」 등이다. 1970년대 발견된 것은 「蔚州川前里書石 原銘·追銘·기타 題銘」, 「武寧王陵墓誌石」, 「丹陽新羅赤城碑」, 「中原高句麗碑」 등이다. 1980년대에 발견된 것은 「蔚珍鳳坪新羅

碑」, 「慶州明活山城作城碑」, 「迎日冷水里新羅碑」 등이다.

이렇게 새로운 금석문이 출현함으로써 이러한 금석문을 모은 자료집 성격의 연구 성과들이 나왔다. 1968년에 李蘭暎은 『韓國金石文追補』을 내었고, 1976년에 黃壽永은 『韓國金石遺文』을 내었다. 1984년에 許興植은 『韓國金石全文(고대)』을 내었고, 임창순은 『한국금석집성 1-선사시대-』를 내었고, 1985년에 趙東元은 금석문 탁본을 위주로 하는 『韓國金石文大系』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한국고대사회연구소에서는 1992년에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을 3권으로 출간하였다. 2002년에 권덕영은 『韓國古代金石文綜合索引』이라는 색인집을 출간하였고, 임세권과 이우태는 2002년에 임창순의 소장 탁본 가운데 광개토대왕비문을 『한국금석문집성(1) -고구려 1, 광개토왕비(해설편)』로 편집해 내었다. 이렇게 자료집이 나옴과 동시에 금석문을 집중적으로 다룬 박사학위 논문도 출간되었다. 1994년에 나온 김창호의 「六世紀 新羅 金石文의 釋讀과 그 分析」과 2007년 박중환의 「백제 금석문 연구」 등이 그 예가 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새로운 자료들이 종종 출토되어 학계와 세인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 시기 새로운 자료의 출현은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보인다. 하나는 종래에는 금석문의 대다수는 신라지역에서 출토되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 백제 지역에서 새로운 금석문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부여 능산리 폐사지에서 창왕 14년(567)에 만들어진 「창왕명화강석제사리감」, 2007년 부여 왕흥사목탑지 심초석 부근의 화강석 사리공에서 출토된 창왕 24년(577)에 만들어진 「청동사리함舍利記」,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봉안기」 등 사리와 관련한 금석문이 그것이다. 미륵사지 사리봉안기는 미륵사 서탑이 639년에 창건되었다는 것과 무왕의 왕비가 좌평 사탁적덕의 딸로 나와 『삼국유사』 무왕조의 신빙성 문제를 일으켰다.

두 번째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중국에서 고구려 및 백제 유민과

관련한 금석문이 다수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1920년에 중국 낙양의 北邙에서 출토된 부여용묘지명이 소개된 이래 낙양 망산에서 출토되어 1991년에 이문기, 이도학에 의해 「黑齒常之墓誌銘」과 그의 아들 「黑齒俊墓誌銘」이 소개되었다. 2007년에는 김영관에 의해 「百濟將軍 祿寔進墓誌銘」이 소개되었고, 2008년에는 김영관에 의해 「百濟義慈王 曾孫女 太妃扶餘氏墓誌銘」이, 2009년에는 권덕영에 의해 「大唐故金氏夫人墓誌銘」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금석문의 출토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중국으로 들어간 유민들과 在唐 신라인들의 삶의 모습을 일정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大唐勿部珣將軍功德記」에는 물부순이 흑치상지의 딸과 결혼하고 있어 유민들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도 엿보게 한다.

세 번째로는 목간 자료가 매우 많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네 번째로 2009년에 소개되거나 발견된 금석문으로는 제천 점말동굴에 새겨진 화랑관련 명문과 가칭 「興海中城里新羅碑」를 들 수 있다. 점말동굴명문에는 祥蘭宗 등 화랑 이름과 禮付와 같은 관칭명이 나오고 있다. 「홍해중성리비」비는 2009년 5월에 포항시 홍해읍 중성리에서 도로공사를 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이 비석은 1989년 영일냉수리신라비가 발견된 이후 20년 만에 나온 것이어서 꽤 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비면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대다수의 글자는 판독이 가능하다. 아쉬운 것은 우측면과 상부의 일부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글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이 비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비에는 6部 아래에 壹伐 등의 관등이 나오고 있어 신라 六部조직의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또 이 비에는 辛巳年이라는 간지가 나오고 있는데 제작 연대는 501년과 441년 둘 가운데 하나이다. 발표자는 441년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2. 목간 자료의 수집 · 정리

우리나라에서 고고학적 발굴은 처음에는 고분이나山城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성 토양이 강한 지질적 특성으로 유적에 사용된 목재의 대다수는 썩어버렸거나 산화되었다. 그러다가 70년 후반 이후에 와서 저습지 지역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물에 젖어 썩지 않은 많은 목재들이 발굴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무 조각에 문자가 쓰인 목간 자료들이 출토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 안압지에서 50매의 목간을 발굴하였다. 이는 한국 목간 발굴사에서 획기를 이룬 것이었다.<sup>1)</sup> 여기에는 ‘寶應四年’, ‘郎席長十尺細次我三件法次’, ‘奉太子君’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후 1990년대 이르기까지 발굴된 목간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함안 성산산성 발굴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하였는데 성안의 물을 다스리기 위해 친 나무울타리 둑 부분에서 총 246점의 신라 목간이 출토되었다. 목서 내용 중에는 及伐城, 甘文城, 仇利伐 등 지명과 波婁, 居利支 등 인명과 一伐, 一尺 등 외위와 稗, 麥 등 곡물명과 奴人, 村主 등 신분이나 직명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하남 이성산성 목간은 1986년부터 진행된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이성산성 저수지 발굴에서 출토되었다. 저수지는 2차로 조성되었는데 1차는 6세기 중엽, 2차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辛卯年五月八日向三...前禰薩郭’과 ‘戊辰年正月十二日明南漢城道使’ 등이 쓰여진 목간도 출토되었다.

- 
- 1) 목간자료의 사료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기동, 2009 「문자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고대문자자료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 2) 출토 목간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는 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의 고대목간』 학술조사보고 제25집과 국립부여박물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속 암호 목간』에 의거하였다.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는 ‘違之何如子曰清矣...’ 등 논어 公冶章의 일부가 쓰인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논어의 習書用 목간이라 할 수 있다. 시기는 6-8세기 대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성해자 목간은 1980년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월성 동문지 외곽의 해자를 발굴하는 중에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四月一日 典大等敎事’와, ‘第八卷第卅三...’ 이 쓰인 목간 등이 출토되었다. 국립경주박물관 내에서 출토된 목간은 2000년 박물관을 신축하면서 출토되었다. 목간은 4점인데 ‘万本0身中有四入’ 등이 쓰여진 것도 있다.

1994년 동국대학교박물관이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개의 목간이 나왔다. 수혈유구를 비롯한 제반 시설은 7-8세기에 해당되는 신라시대의 官營 혹은 宮이 관리하는 창고의 부속 건물로 판단되고 있다. 여기에는 ‘仲僚有食卅三石’, ‘五月廿六日僚食’ 등이 쓰인 목간이 있다.

부여 지역의 경우 충남대학교박물관이 1982에서 1992년까지 7차에 걸쳐 조사를 행한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대규모 공방관련 시설과 더불어 목간이 출토되었다. 여기에는 ‘二月二日兵与’, ‘中方向大’, ‘岫夷’ 등이 쓰인 목간이 있다.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목간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8차에 걸친 발굴에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奉義’, ‘无奉’ 이 새겨진 목간, ‘三月十二日梨田三’ 이 새겨진 목간, ‘韓城下部對德疏加鹵’, ‘書亦從此法爲之凡六部五方’, ‘四月七日賣熹寺’, ‘又送鹽二石’, ‘宿世結業 同生一處’ 등이 쓰여진 목간 등이 출토되었다. 부여 궁남지 유적은 국립부여박물관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이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발굴을 하였다. 주로 6세기 무렵에 조성하여 사용된 인공수로와 목조 저수조 내부에 퇴적된 개흙 층에서 ‘西部後巷 已達斯’ 목간, ‘歸人中口四小口二’ 목간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1998년 부여 쌍북리에서 충남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완형 목간 1점이 출

토되었다.

익산 지역의 경우 1980-1994년에 걸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익산 미륵사지 발굴에서 목간 2점이 출토되었는데 동서 연못 가운데 통일신라 초기에 조성된 서쪽 연못 내부의 개흙 층에서 수습되었다. 여기에는 ‘光以山五月二日’ 목간이 있다.

1975년 안압지에서 목간이 출토된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출토된 목간 자료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연구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 준 것이 창원문화재연구소(지금의 가야문화재연구소)가 2004년에 발간한 『한국의 고대목간』이다. 여기에는 유물 사진과 X선 사진은 물론 판독 대비표까지 들어있어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창원문화재연구소는 연구자들이 이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보급판으로 『개정판 한국의 고대목간』을 출간하였다.

『한국의 고대목간』이 출간된 이후에도 새로운 목간 자료들이 계속 출토되고 있다. 함안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을 비롯하여 충청문화재연구원 이 2006-2007년에 발굴한 현내들·북포유적 조사에서 14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0率牟氏丁一’, ‘德率首比’ 목간도 있다. 2008년 백제문화재연구원은 부여 쌍북리 280-5번지 유적 조사에서 ‘佐官貸食記’ 목간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2008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나주 북암리 고분군 지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혈유구에서 목간을 발굴하였다. 이 목간은 ‘三月中監數長人 出省者得捉得0奴’가 쓰여져 있다. 이외에 水田, 白田 등이 쓰인 목간 등도 출토되었다. 근래에 윤용구는 북한 평양에서 출토된 낙랑군 호구자료를 기록한 목간을 소개하였다.

이렇게 목간이 다수 발굴되자 이 자료들을 활용하기 쉽게 도록으로 묶어내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7년에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들을 정리하여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출간하였고,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제의 목간 자료만 모아 2008년에 『백제목간』의 이름으로 도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 국립문화재연구소 4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최근에 출토된 목간까지를 포함한 『나무 속 암호 목간』을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금산 백령산성 출토 목간, 나주 북암리 출토 목간, 인천 계양산성 출토 목간, 평양 정백동 출토 낙랑 목간 등도 수록되어 있어 연구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간 자료는 수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볼 때 목간 발달사에서 중국 대륙과 일본열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숫자는 적다고 하더라도 목간의 내용을 검토하고 한, 중, 일 목간 자료들을 비교 ·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7년에 목간학회가 만들어졌고 이 학회에서는 「목간과 문자」라는 학회지를 내고 있다.

### Ⅲ. 해야 할 과제

#### 1. 금석문 개념의 내포 범위

금석문은 字意上에서 볼 때 청동이나 쇠 등 금속에 글이나 그림을 새긴 金文과 돌에 새긴 石文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금석문은 그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1차 사료로서 새겨진 내용을 비롯하여 문체, 서체, 字形, 언어, 조형 예술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금석문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을 비롯하여 문학, 국어학, 서예,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현재 우리 학계에서 사용하는 금석문의 개념에는 금문과 석문 이외에 토기나 기와 및 전돌에 새겨진 銘文, 나무 조각에 쓴 木簡 기록, 고분의 벽과 漆器에 쓰인 글씨 등과 바위에 새긴 그림이나 線刻도 포함되고 있다. 금석문 개념이 이렇게 넓은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은 고고학 발굴에서 금문이나 석문이 많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석문을 주제로 한 연구에는 금문, 석문뿐만 아니라 목간도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고대사연구소가 편찬한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I·III의 경우 안악3호분, 유주자사진 묵서 및 모두루묘지 묵서와 낙랑지역에서 출토된 칠기에 쓰인 묵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 주보돈의 『금석문과 신라사』에 이성산성 출토 목간과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 박중환의 박사학위논문인 『백제금석문연구』에 목간 자료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교양서로 편찬된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의 『금석문으로 한국고대사 읽기 고대로부터의 통신』 경우에 양직공도, 모두루묘지 묵서, 유주자사진 묵서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된다.

그러나 고고학 발굴에서 얻어진 문자 기록을 금석문이라는 이름 속에 모두 포괄시키면 금석문의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그 의미가 모호해지게 된다. 예를 들면 고분벽화에 쓴 묘지를 墓誌銘이라고 하면 묘지를 벽면에 새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墨書이므로 묘지명이라는 명칭은 내용과 맞지 않는다. 이를 고려해서 서책 이외의 물건에 기록한 것을 銘辭라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를 銘辭學, 銘文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sup>4)</sup> 그렇다고 하더라도 墨書를 銘辭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제에 금석문이라는 명칭이 내포하는 범위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종이에 기

3) 조동원, 2002 「한국학과 금석문」 『국학연구』장간호, 한국국학진흥원, p.6.

4)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금석문종합영상시스템.

록된 문헌자료 이외의 기록은 기록 방법에 따라 글자를 새긴 것은 刻文 또는 銘文으로, 붓으로 쓴 것은 墨書로 파악한다. 글자가 아닌 그림은 岩刻 또는 岩刻畫로 불려도 좋을 것이다. 각문이나 묵서는 재질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각문의 경우 금문과 석문은 통례대로 금석문으로 부르면 좋을 것이고 전돌이나 토기 또는 기와 등에 새긴 것은 塼銘, 陶銘으로, 도장처럼 찍은 것은 印銘 등으로 부를 수 있겠다. 묵서의 경우 현재 그 수가 가장 많은 목간은 목간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고분의 벽면이나 토기 등에 쓴 것은 묵서로 불려도 좋을 것이다.

## 2. 관심의 확대 : 무관심이 불러온 때 늦은 소개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고고학적 발굴이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금관이나 금동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귀중한 유물들이 수습되어 우리역사와 문화를 체계화하고 내용을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목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발굴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만큼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된다. 관심이 없으면 귀중한 자료도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버리게 되고 그에 따라 그 자료가 보여줄 많은 정보도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관심을 가지고 봄으로써 그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게 된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두기로 한다.

하나는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의 木材棺이다. 무령왕릉에서는 묘지석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는 왕과 왕비의 시신을 넣은 棺材도 출토되었다. 관재의 樹種에 대한 분석은 발굴 20주년이 되는 1991년에 와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왕과 왕비의 관재는 일본산 金松이라는 것이 밝혀졌다.<sup>5)</sup> 이러한 사실은 백제와 왜와의 문화교류를 직접적

5) 이에 대해서는 박상진, 1991 「백제 무령왕릉 출토 관재의 수종」 『무령왕릉의 연

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학계는 물론 일반 시민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관재의 樹種에 대한 분석이 발굴 당시에 행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굴된 지 20년이 지나서야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목재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동안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목재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정보들이 무관심의 소치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겪은 이후 발굴에서 나온 나무에 대한 수종 분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창녕 송현동 7호분에서 출토된 구유모양의 목관에 대한 수종 분석을 통해 이 목관은 녹나무로 만들어졌음을 밝혔고,<sup>6)</sup>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수종은 84%가 소나무로 밝혀낸 것이<sup>7)</sup> 그 사례가 된다. 특히 녹나무는 제주도에서 자리기도 하나 굵고 재질이 좋은 녹나무는 일본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의 경우는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이다. 추사 선생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진 본 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보존하고 있고, 비봉의 원 자리에는 標識石을 세워 두었다. 그런데 비봉을 찾은 많은 등산객들은 이 표지석을 실제의 비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 複製碑를 만들어서 비봉에 세우기로 하였다. 이때 가능하면 같은 재질의 돌을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암석의 재질을 검토해 보니 이 비의 石材는 북한산 지역의 돌이 아니고 경주지역의 돌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산비는 당연히 북한산 지역의 돌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뒤엎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비가 세워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즉 진흥왕은 북한산으로 순수할 때 비석으로 사용

구현황과 제문제』 참조.

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6 『창녕 교동고분군 발굴약보고서』.

7)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할 목적으로 경주지역의 돌을 가지고 간 셈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마운령비나 황초령비를 비롯하여 단양적성비와 창녕비의 석재도 과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인지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력 동원이나 운반 수단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점말동굴 암벽에 새겨진 화랑관련 銘文이다. 점말동굴은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서 연세대학교 박물관인 1973년~1980년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발굴·조사하여 현재는 충청북도기념물 116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동굴 암벽에 명문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명문 가운데 확인된 글자는 禮部, 祥蘭, 起公 등이며 이를 통해 여러 화랑들이 이곳을 거쳐 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명문이 발견된 지 36년이 지난 이제야 학계에 소개된 것이다.<sup>8)</sup> 이렇게 늦게 소개된 것은 역시 관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석기시대 유적으로서 점말동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구석기유적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바람에 귀중한 문자자료가 30년 이상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할 때 화랑도들의 遊娛지역은 오대산, 설악산 등 주로 강원도 일대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점말동굴 암벽 명문은 유오 대상지가 광범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명문이 발견된 시기에 울주 천전리에서는 천전리서석이 발견되어 학계에 소개되었고 이 유적은 1973년에 국보 147호로 지정되었다. 이때 점말동굴 암벽 명문도 함께 소개되었다면 화랑도의 활동 모습을 이해하는데 상승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비록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소개되어 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소개된 것만으로도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고 하겠다.

8) 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화랑의 場, 점말동굴, 그 새로운 탄생』 학술대회발표문집 참조.

### 3. 금석문과 목간 자료의 대중화

금석문과 목간은 연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공유하여야 그 의미가 크게 된다. 이러한 공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금석문과 목간의 원문을 번역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주석을 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중요 성과로는 1992년에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가 편찬한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고구려·백제·낙랑편), II (신라1·가야편) III (신라2·발해편)이 유일하다.<sup>9)</sup> 한편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가 2004년에 『고대로부터의 통신 : 금석문으로 한국 고대사 읽기』는 주요 금석문에 대해 발견 경위와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설명한 것으로서 금석문을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컸다.

둘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IT기술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금석문과 목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사례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제작한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고대금석문을 물론 고려시대의 금석문의 사진, 종류, 위치, 간략한 내용, 시대 등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셋째, 금석문의 대중화는 실물을 직접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국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금석문을 일일이 현장을 찾아가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는 비석전문 전시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 사례의 하나로는 울진군에서 추진하

---

9) 고려 이후 고승들의 비문에 대한 역주는 李智冠이 1994에서 1999년 사이에 펴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1, 고려편2, 조선편을 들 수 있다.

고 있는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이다. 여기에는 실물 봉평비를 중심에 두고 한국고대의 중요 금석문 10점을 원형대로 복제하여 전시관 안에 전시하고 야외에는 한반도 형태의 지형을 만든 후 고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중요 금석문 30여점을 역시 실물 형태로 복제하여 발견된 장소에 전시함으로써 현장감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여기에서는 금석문에 대한 탁본도 할 수 있고 서체를 흉내 내어 글씨를 써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도 금석문의 대중화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전시관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이러한 자료의 대중화를 도모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유물에 대한 설명문과 안내문을 알기 쉽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도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의 경우 내부에 전시되는 10점의 금석문에 대한 설명문을 만들기 위해 고대사 전공자와 서체 전공자 등 8명이 모여 여러 차례 내용을 검토하고 윤독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설명문 만들 때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목간 자료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학계에서는 목간 자료들을 모아 譯註集을 출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진은 물론 판독문도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목간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함안군 성산산성이다. 함안군에서는 성산산성 목간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의 목간을 체계적으로 전시하는 전용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하여 목간 자료에 대한 영상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목간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이 목간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재구성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 사례로는 2008년에 출간된 윤선태의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역사문고 28을 들 수 있다. 앞으로는 목간 자료의 내용을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분야에서 정리하여 소개하는 이러한 교양서

들이 많이 출간되어야 할 것이다.

#### IV.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

##### 1. 영천청제비 병진명 · 정원명

###### 1) 塙와 隄(隄)

도작이 본격화 하면서 도작에 필요한 수리시설과 저수들이 만들어졌다. 저수지와 관련한 명칭을 보면 『삼국사기』에는 隄防(백제 구수왕 9년 · 무령왕 10, 신라 일성왕 11 · 법흥왕 18 · 헌덕왕 2 · 현안왕 3), 池(신라 흘해왕 21), 堤(신라 눌지왕 13 · 원성왕 6) 등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당시에 사용된 것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용어 문제는 당시의 사정을 보여주는 금석문 자료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저수지와 관련한 용어가 공통으로 나오는 것은 영천청제비와 무술오작비이다. 이 두 비문에는 ‘塙’가 나온다. 塙에는 전투적 방어용의 시설을 뜻하는 의미도 있고<sup>10)</sup>, 언덕 또는 봉우리를 뜻하기도 한다.<sup>11)</sup> 그렇지만 청제비 병진명에 나오는 塙는 저수지가 분명하다. 따라서 대구무술오작비의 ‘塙’도 저수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천청제 병진명의 연대는 법흥왕 23년(536)이고, 무술오작비의 연대는 진지왕 3년(578)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비는 신라가 6세기 중엽까지 저수지를 塙로 표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영천청제비 정원명에서는 이 저수지를 蓄堤로 표기하고 있다.

10) 『說文解字』의 “塙小障也 一曰陣城也” 참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는 노용필, 2009 「신라의 벼농사와 수리」 『역사학연구』36, 호남사학회, pp.7~8.

11)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의 “王后崩...藏於龜旨東北塙” 참조.

정원명의 연대는 원성왕 14년(798)이다. 또 『삼국사기』에도 원성왕 7년(791)조의 辟骨堤에 보듯이 역시 저수지를 堤라 표기하고 있다. 이는 8세기에 들어와 신라가 저수지를 堤로 표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하면 신라에서는 6세기에는 저수지를 塢로, 8세기에 와서 堤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이 塢를 堤堰의 형태가 아니라 하천의 흐름을 제어하는 둑인 洑 형태의 수리시설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하나는 청제비 병진명과 정원명에 보이는 수리시설은 동일한 실체라는 것이다. 정원명의 청제는 병진명의 오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을 수리한 것이지만 그 규모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진명의 塢와 정원명의 堤는 동일한 실체에 대한 표기의 차이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술오작비의 경우 塢의 규모가 “廣廿步 高五步四尺 長五十步”에서 보듯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1보는 6척이다. 오작비가 만들어질 당시 신라에서 1척의 길이가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 남조의 경우 1척 25cm의 기준척을 사용하였다. 이를 대입하면 이 塢의 넓이는 30m, 높이는 7.5m, 길이는 75m가 된다.<sup>13)</sup> 이런 규모의 제방을 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면에서 보았을 때도 塢는 저수지의 堤防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백제의 경우 저수지와 관련한 용어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벽골제이다. 벽골제가 백제 비류왕대에 처음 축조되었을 때의 명칭은 辟骨池였다. 이는 4세기 대에 백제가 저수지를 池로 표기하였음을 시사해

12) 김재홍, 1995 「신라 중고기의 저습지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 『한국고대사논총』7, pp.78~79 ; 노용필, 2009 「신라의 벼농사와 수리」 『역사학연구』36, 호남사학회, pp.7~8.

13) 남조의 기준척에 대해서는 노중국, 2005 「백제의 도량형과 그 운용」 『한국고대사연구』40집, 서경문화사 참조.

준다. 그런데 무령왕대에 와서 “修理隄防”<sup>14)</sup>에서 보듯이 저수지를 隄防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백제는 6세기에 와서 저수지를 池에서 堤(隄)로 바꾸어 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저수지를 나타내는 용어로 주목되는 것이 지명에 붙는 ‘吐’이다. 지명에 吐가 붙는 사례로는 양주의 漆吐縣, 한주의 主夫吐郡, 삭주의 奈吐郡, 명주의 吐上縣 등이 있다. 이 지명들은 경덕왕대에 漆吐縣은 漆隄縣으로, 主夫吐郡은 長堤郡으로, 奈吐郡은 奈隄郡으로, 吐上縣은 隄上縣으로 개칭되었다.<sup>15)</sup> 경덕왕대에 이 ‘吐’를 모두 ‘隄’로 개칭한 것은 ‘吐’가 저수지를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비록 후대의 표현이지만 ‘무늬이’를 ‘餘水吐’라 한 것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다. 그런데 吐가 붙은 지역은 양주의 칠토현을 제외하면 모두 고구려 영역이었다. 이는 고구려가 저수지를 吐로 표기하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그러나 이 吐도 통일신라시대에 와서는 隄 또는 隄防으로 바뀌었다.

## 2) 洑와 堤

저수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기능을 한다. 첫째는 물을 저장해두는 제방이고, 둘째는 제방에 의해 가두어진 물을 빼내는 시설이고, 셋째는 저수지 아래의 蒙利 답에 저수지에서 나온 물을 대는 시설이다. 따라서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수지의 물을 빼는 시설과 이렇게 빼낸 물을 논에 대는 시설도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금석문 가운데 저수지 시설과 관련한 명칭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영천청제비 정원명이다. 여기에는 堤, 洑, 上排堀里 등이 나온다. 이 가운데 상배굴리는 下排堀里를 전제로 한다. 이 배굴리는 水桶을 의미하

14)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무령왕 10년조.

15)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및 지리6 고구려·백제조.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저수지의 물을 빼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정원명에 나오는 ‘湫堤’의 의미이다. 이 ‘湫堤’에 대해 ‘湫의 堤’로 보고 이 보를 하천의 물을 막아 만든 저수지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sup>16)</sup> 그러나 정원명에 이 저수지 자체를 蓄堤로 표기되고 있으므로 보를 저수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湫堤는 湫와 堤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sup>17)</sup> 제가 제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시설이다. 즉, 몽리답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방으로 가둔 물을 배굴리를 통해 밖으로 내보낸 후 이 물을 중간 중간에 가두어 논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이 시설이 바로 湫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湫堤傷故”는 ‘湫와 堤가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제중립비에 의하면 조선 숙종 시기에 이 별판에서 300여 석의 소출이 나왔다고 한다.<sup>18)</sup> 이를 토대로 할 때 1688년 당시 청제의 관개 농지는 79결(약 30만평)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9)</sup> 현재에도 영천청제 밑에는 넓은 별판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넓은 별판에 물을 대기 위해 보를 중심으로 한 물길이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물길과 보들은 돌로 쌓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독을 쌓거나 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시설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파손되거나 허물어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홍수에 의해 파괴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를 비롯한 수로 시설도 필요할 때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원성왕은 14년(798)에 청제의 못을 수리할 때 못 뚝만 수리한 것이 아니라 몽리 답에 설치된 많은 수로 시설들도 수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청제비 정원명에 2월 12일에서 4월 13일에 이르기까지 2달 동안 14,140명의 인원을 동원한 것도 순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16) 이기백, 1977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p.283.

17) 노용필, 2009 「신라의 벼농사와 수리」 『역사학연구』36, 호남사학회, p.8.

18) 영천청제 중립비에 “蓋此堤灌溉三百餘石 至今蒙利”라 한 기사 참조.

19) 권병탁, 1986 「청제문부자료 해설」 『민족문화연구』7,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것으로 본다.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청제 앞에 펼쳐진 논에 대한 발굴 조사도 필요하다.

## 2. 나주 복암리 목간의 水田·白田과 창녕비의 畚·白田

우리나라에서 논농사는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이 논농사는 삼국 시대에 와서 더욱 확대되었다. 논에 대한 표기를 찾아보면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경우 고이왕 9년(242)조에 稻田이 나오고,<sup>20)</sup> 『삼국지』 동이전 진 변한전에는 “五穀及稻”가 나온다. 도전은 논이다. 이렇게 보면 백제본기 다루왕 40년(서기 67)조의 “水損之田”의 田도 稻田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에는 논에 대한 표기는 보이지 않고 『삼국유사』 善律還生조에 ‘水田一畝’가 보인다. 선율은 望德寺 승려였다. 망덕사는 문무왕대에 세워진 것이므로<sup>21)</sup> 이 기사는 통일 이후의 것이다. 그러나 도전이란 표현이 3세기 당시에 사용의 것인지는 분명히 하기 어렵다. 따라서 논에 대한 당시의 표기는 금석문이나 목간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백제의 경우 부여 궁남지에서 출토된 ‘西部後巷’ 목간에는 “水田五形”이 나온다.<sup>22)</sup> 또 2008년도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나주 복암리 고분군(사적 제404호)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31점의 백제시대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水田’·‘白田’·‘麥田’ 등 토지의 경작형태와 ‘形’이라는 토지 단위 및 ‘72石’ 등의 소출량이 기록된 목간도 있다.<sup>23)</sup> 이

20)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고이왕 9년(242)조에 “春二月 命國人開稻田於南澤”이라 한 기사 참조.

21) 『삼국유사』 권2, 기이2 문호왕 법민조.

22) 최맹식·김용민, 1995 「부여 궁남지 내부 발굴조사 개보」 『한국상고사학회』20, 한국상고사학회.

23) 이에 대한 설명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2009에 낸 자료 소개 「나주 복암리 유적 출토 목간」과 및 김성범, 2009 「나주 복암리 유적 출토 백제목간」 『고대의

목간들은 6-7세기의 것이다. 이는 사비도읍기에 백제가 논을 수전으로 표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의 경우 논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에 “海州白田畚”이다. 이 기사의 畚은 논이고 白田이 밭임은 물론이다. 이 비의 건립연대인 신사년은 진흥왕 22년(561)이다. 따라서 신라는 늦어도 6세기 중반에는 논을 畚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촌락장적에 ‘烟受有畚田’, ‘官謨畚’ 등이 나오고 있어 이 답자는 통일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이후 이 답자는 논을 나타내는 글자로 보편화되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논을 수전으로 표기하였을 뿐 畚이라는 글자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답자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에 “仍駕幸假宮之南新畚坪(是古來閑田 新耕作故云也 畚乃俗文也)”<sup>24)</sup>라 한 것에서 보듯이 俗文 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글자이다. 이 답자는 신라 창녕비에 나온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백제 궁남지와 나주 북암리에서 출토된 목간에서는 水田이 나온다. 비슷한 시기에 백제에서는 수전이란 표현이, 신라에서는 답이라는 글자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畚자는 늦어도 6세기에 신라에서 만든 造字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3. 영일냉수리신라비의 ‘此七王等’에 대한 해석

영일냉수리비는 기존의 문헌자료에 보이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어서 5세기 신라사의 모습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었다. 그런 만큼 이 비에 나오는 기사에 대한 해석에도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癸未年九月廿五日 沙喙至都盧葛文王 斯德智阿干支 子宿智居伐干支 喙尔夫智壹干支 只心智居伐干

목간, 그리고 산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참조.

24)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조 참조.

支 本彼頭腹智干支 沙彼暮斯智干支 此七王等共論教”라 한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此七王等’에서 ‘王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等’을 복수의 의미로 보아 ‘7명의 왕들’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탁부와 탁부의 인물은 물론이고 本彼와 斯彼の 인물마저 왕으로 불린 것으로 된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 시기 왕권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사례로 많이 활용되었다. 둘째는 명칭에서 미루어 上大等은 大等에서 분화되었고 대등은 等에서 분화되었다는 관점에서 ‘等’을 대등의 전신으로 본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此七王等은 1명의 갈문왕과 6명의 等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等’이라는 官名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等’을 복수존칭접미사 또는 복수접사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공통점은 ‘王’을 최고지배자를 나타내는 칭호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냉수리비에 7명의 왕이 있는 셈이 된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 왕은 갈문왕의 축약으로 보는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王等’의 ‘等’은 복수의 의미로, ‘왕’은 ‘님’의 訓讀으로 파악하는 것이<sup>25)</sup> 타당하다고 본다. 等이 복수라는 것은 울진봉평신라비에 “甲辰年 正月十五日 喙部牟卽智寐錦王 沙喙部 斯夫智葛文王...失尔智奈麻等所教事”라 한 사례와 단양신라적성비의 “王教事大衆等”이라 한 사례에서 입증된다. 한편 ‘王’을 ‘님’의 훈독으로 읽을 수 있는 자료는 蔚州川前里書石追銘에 나오는 “妹王考妹王過人”이라는 구절이다. 이 부분의 판독에는 현재 異論의 여지가 없다. 이 기사의 妹王을 妹와 王으로 구분해 보는 견해도 있지만 뒷부분에 ‘王與妹’가 나오고 있어 성립되기 어렵다. 또 妹王을 하나로 보고 왕의 여동생도 왕으로 칭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

25) 문경현, 1990 「영일냉수리신라비에 보이는 부의 성격과 정치운명문제」 『한국고대사연구-영일냉수리신라비 특집호-』3, 한국고대사학회, p.150.

지만 아무리 사랑스러운 누이라도 ‘누이 왕’으로 부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왕’은 ‘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妹王考妹王過人”은 “누이님을 생각하니 누이님은 지나간 사람[죽은 사람]이다.”가 된다.<sup>20)</sup>

천전리서석 추명은 539년의 것이고 냉수리비는 503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약 30여년의 시간 차이는 있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이 정도의 시간 차이는 거의 동시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므로 ‘왕’을 ‘님’으로 혼동하는 것을 냉수리비에 원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此七王等’은 ‘이 일곱님들’로 해석되어 7명은 고위귀족 관료이지 왕이 아님을 알 수 있겠다.

#### 4.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봉안기

##### 1) 무왕의 왕비 문제

『삼국사기』에는 무왕의 왕비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느 가문 출신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무왕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와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동과 선화공주와의 결혼에 대해 종래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래서 이 결혼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견해, 『삼국사기』에 동성왕이 신라의 이찬 비조부의 딸과 결혼한 것과를 연계시켜 동성왕과 신라 이찬 비조부의 딸과의 결혼으로 고쳐보는 견해, 무령왕과 신라 왕녀와의 결혼으로 보는 견해 등이 나왔다. 그러나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봉안기에 의해 미륵사 창건이 무왕대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무왕을 동성왕으로 고쳐보거나 무령왕으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20) 강종훈, 1999 「울주천전리서석명문에 대한 일고찰」 『울산사학』1, 울산대학교박물관.

무왕과 선화공주와의 결혼 기사를 믿기 어렵다고 보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결혼이 설화적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왕이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법왕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池龍과 寡婦 사이에 서동이 태어났다고 하는 설화가 만들어질 수 없다. 백제왕 가운데 출생이나 출계에 이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는 무령왕이 동성왕의 둘째 아들로 나오지만 『일본서기』에는 무령왕은 동성왕의 이모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무령왕릉묘지석이 발견되면서 무령왕은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 異母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삼국유사』의 경우 왕력과 무왕조에 무왕이 법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왕금살조에는 ‘父基子構’라 하여 법왕과 무왕을 부자관계로 보는 내용도 있지만 세주에는 지룡과 과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무왕이 법왕의 아들이 아니라 몰락한 왕족 출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기록은 서동으로서 왕위에 오른 무왕이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에 설화적인 요소가 부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무왕 대에 신라와의 전투가 너무 빈번하여 양국 사이에 결혼이 맺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결혼은 정략결혼이므로 여기에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중에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성왕은 551년에 신라 및 가야군과 연합군을 조직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의 6군을 되찾았지만 553년에 신라에 의해 빼앗기고 말았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성왕은 자신의 딸을 진흥왕의 소비로 시집보냈다. 이를 원용하면 무왕과 신라 진평왕은 서로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륵사에서 출토된 사리봉안기에는 무왕의 왕비는 사탁적덕의 딸인 것으로 나온다. 사탁씨는 사택씨로도 표기되는데 부여지역에 기반을 둔

세력이다. 이 세력은 성왕의 사비천도를 적극 지지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비천도와 더불어 백제의 최고 귀족 가문이 되었다. 『수서』 백제전에 나오는 대성팔족 가운데 沙氏(沙宅氏)가 冒頭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후 사택씨 출신자들 가운데는 상좌평, 대좌평 등의 고위 관등을 가진 인물들이 종종 나오며 왕비의 아버지 사택적덕도 좌평의 관등을 가진 인물이었다. 따라서 본 사리봉안기는 무왕이 당대 최고의 귀족 가문에서 왕비를 맞아들인 것을 보여준다. 이에 근거하여 선화공주의 존재는 허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sup>27)</sup> 그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익산출신으로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sup>28)</sup>

그러나 선화공주의 존재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는 사택씨 왕후가 무왕의 유일한 왕비이나 하는 점이다. 고대사회에서 왕비는 둘 이상 있을 수도 있다. 고구려 안원왕의 경우 正부인, 中부인, 小부인으로 표현된 3명의 왕비가 동시에 있었다. 그리고 진흥왕도 성왕의 딸을 소비로 맞은 것에서 미루어 2명 이상의 왕비가 있었다. 따라서 무왕의 경우도 2명 이상의 왕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선화공주와 사택씨 둘 다 동시에 왕비였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무왕의 나이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무왕의 재위 기간은 42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었다. 그의 나이는 손자인 부여용모지명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의 묘지명과 자치통감에 의하면 그는 682년에 68세를 일기로 죽었으므로 615년(무왕 16)에 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의자왕의 장자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남자의 결혼 연

27) 김상현, 2009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의 기초적 검토」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백제학회.

28) 김수태, 2009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백제학회.

령이 강수의 경우에서 미루어 볼 때 20살이므로 615년에 의자의 나이는 적어도 20세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무왕의 장자인 의자의 출생은 늦어도 595년(위덕왕 42)이 되므로 무왕의 나이 역시 20세쯤였을 것이다. 이때 무왕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으므로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의자를 낳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돌아가실 때 무왕의 나이는 최소한 66세 이상이었다. 따라서 沙屯氏 왕비가 무왕과 제일 먼저 결혼하여 의자를 낳고 무왕 재위 기간 내내 왕비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먼저 맞은 왕비가 죽은 후 사탁씨 왕비가 새로운 왕비로 맞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고, 선화 공주가 있는데도 새로운 왕비로 맞아들였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선화공주가 先妃이고 사탁씨 왕후는 后妃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사탁씨 왕후의 존재만으로 선화공주를 가공의 인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 2) 미륵사의 완공 시기

사리봉안기의 출현으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미륵사의 창건 발원자와 완공시기였다. 『삼국유사』 무왕조에는 미륵사 창건의 발원은 선화공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봉안기에는 백제의 귀족인 사탁적덕의 딸인 왕후가 발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미륵사의 창건 시기에 대해 무왕조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봉안기에는 무왕 40년(639)으로 나온다. 이로 말미암아 무왕조의 창건연기설화가 허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삼국유사』에 나오는 미륵사 창건연기 설화는 미륵사지 발굴결과와 대부분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삼국유사』에는 미륵사는 용화산 아래에 있고 못을 메워 彌勒三會殿과 塔과 廊廡를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익산 미륵사는 미륵산(용화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부터 일치한다. 또 미륵사지 전체를 발굴한 결과 미륵사는 중앙의 9층 목탑과 중금당, 서쪽의 9층

석탑과 서금당, 동쪽의 9층 석탑과 동금당으로 이루어진 삼탑-삼금당의 삼원 양식임이 밝혀졌다. 이는 『삼국유사』의 미륵삼회전이라는 표현과 일치한다. 따라서 사리봉안기에만 의거하여 『삼국유사』의 기록을 쉽게 허구로 돌릴 수는 없다.

둘째로 미륵사의 완공시기 문제이다. 사리봉안기에 의하면 서탑과 서금당은 639년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미륵사 전체가 이때 완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륵사지를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 중앙 목탑과 중금당이 서원과 동원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삼원 양식의 미륵사 가람구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중원이다. 이 중원은 탑과 금당의 규모가 서원이나 동원에 비해 훨씬 크다. 따라서 중원을 먼저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미륵사는 중원이 먼저 완성되고 그 후 639년에 서원과 동원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원이 완공된 시기를 추정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간지가 새겨진 印刻瓦이다. 干支가 찍힌 인각와는 己卯銘(무왕 20 : 619), 甲申銘(무왕 25 : 624), 丁亥銘(무왕 28 : 627), 己丑銘(무왕 30 : 629), 丁巳銘(의자왕 17년 : 657), 乙丑銘(신라 문무왕 5 : 665)이 있다. 이 가운데 무왕대의 것으로서 가장 시기가 늦은 것이 기축명(629 : 무왕 30) 인각와이다. 기와가 덮이기 시작하면 건물은 완공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미륵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중원이므로 중원의 금당이 완성되면 미륵사도 일단 완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축명 인각와는 중원의 금당지뿐만 아니라 동원의 동승방지·강당지 및 접랑지·북승방지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이는 무왕 30년에 이러한 건물들에 기와를 덮는 작업도 완료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하면 미륵사의 완공은 중원의 목탑과 금당 그리고 강당 및 승방의 공사가 끝난 무왕 30년(629)에 완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다만 이번 사리봉안기의 출현으로 서원의 탑과 금당은 무왕 40년(639)에 완공되었음을 알

게 되었다.

대규모의 사찰이 오랜 시간에 걸쳐 건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신라 황룡사의 창건을 들 수 있다.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에 착공하여 27년(566)에 금당이 완성되고 30년(569)에 담장 등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한편 『삼국유사』 황룡사장육조에는 진평왕 6년(584)에 금당이 조성된 것으로 나온다. 이 금당은 중금당이 아니라 동금당과 서금당을 말한다. 그리고 선덕왕 12년(643)에 9층목탑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황룡사지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진흥왕대의 창건가람은 절터를 세 구획으로 나눈 후 중앙부에 1탑-1金堂을 세웠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진평왕대에 와서 증건된 가람은 동쪽과 서쪽에 각각 금당을 만든 1탑-삼금당식이었다. 즉 신라는 진흥왕이 553년에 1탑-3금당의 가람 계획을 세운 후 566년에 중앙에 1탑-1금당의 절을 완성하였고 이후 진평왕대에 동금당과 서금당을 완성하였고, 선덕왕대에 기왕의 탑 자리에 거대한 목탑을 세웠던 것이다.

황룡사 창건과 미륵사 창건 과정은 흡사한 면이 많다. 첫째 금당을 셋으로 하는 삼금당식 가람을 처음부터 계획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부에 1탑-1金堂을 먼저 세웠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부에 1탑-1금당이 세워진 후 서금당과 동금당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넷째 중금당이 세워진 후 동·서금당이 세워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다. 미륵사의 경우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황룡사의 경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삼탑-삼금당의 미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삼탑-삼금당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미륵사를 삼원양식의 가람으로 만들 것을 발원하고 중원을 완성시킨 주체는 선화공주이고 사택씨 왕후는 서원의 창건을 발원하고 사리를 봉안한 주체로 파

29) 노중국, 1999 「백제 무왕과 지명법사」 『한국사연구』107, 한국사연구회.

악할 수 있겠다.

### 5. 울주 천전리 乙卯銘의 ‘聖法興大王’과 追銘의 ‘其王與妹·王妃·太王妃’의 재음미

『삼국사기』 본기에서 삼국 각 왕에 대한 칭호를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왕으로 나오고, 신라의 경우 거서간에서 마립간 등의 고유식 칭호가 나오다가 지증왕이 왕호는 왕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정한 후 모두 왕으로 나온다. 『삼국유사』도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대왕의 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 이후 신라 신문왕이 종묘에 치제할 때 “謹言太祖大王 眞智大王 文興大王 太宗大王 文武大王”이라 한 것, 원성왕이 즉위한 후 “追封高祖大阿滄法宣爲玄聖大王 曾祖伊滄義寬爲神英大王 祖伊滄魏文爲興平大王 考一吉滄孝讓爲明德大王”이라 한 것, 『삼국유사』에 경문대왕을 표제어로 한 것 등이 그 사례가 된다.

삼국이 자국의 왕을 대왕으로 불렀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금석문이다. 고구려의 경우 금석문 상에서 최초로 보이는 대왕은 「광개토대왕비문」이다. 『삼국사기』에는 광개토왕으로 나오지만 이 비문에는 ‘國置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으로 또는 ‘永樂太王’으로 나온다. 그리고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에는 “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이 나오고, 「중원고구려비」에는 ‘高麗太王祖王畚’에서 보듯이 太王이 확인된다.<sup>30)</sup>

30) 고구려에서 대왕제가 언제 실시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위서』 권100 열전 제88 고려전에 “其玄孫乙弗利 利子釗烈帝 時與慕容氏相攻擊…”이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의 烈帝는 북위 道武帝의 伯祖父로서 烈帝에 추봉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연대를 표기할 때 추봉왕의 생존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표기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이 추봉왕이 살아있을 때의 시기는 그 당시 황제의 연호로 시기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제는 북위의 추봉왕이 아니라 釗와 붙여서 釗烈帝로 읽는

백제의 경우 대왕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미륵사지서탑출토 사리봉안기의 ‘大王陛下’에서 확인된다. 이는 무왕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왕을 칭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대왕으로 불렸음을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무령왕릉묘지석에 나오는 崩자도 무령왕이 대내적으로 천자에 버금하는 대왕을 칭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백제에서 대왕의 칭호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본 나라현 石上神宮에 보존되고 있는 七支刀에 새겨진 금상감명문에 백제왕이 왜왕을 侯王으로 부르고 있는 것에서 미루어 볼 때 늦어도 근초고왕 대에는 대왕제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신라의 경우 대왕 칭호는 천전리서석 을묘명의 “聖法興大王”이 최초이다. 여기에는 법흥왕을 높이는 표현으로서 ‘聖’과 ‘大王’이 함께 사용된 것이다. 이 을묘명의 연대는 535년이므로 이 칭호는 불교 공인 이후 법흥왕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흥왕에 대한 표기를 보면 524년에 만들어진 울진봉평신라비에는 牟卽智寐錦王으로, 535년의 을묘명에는 성법흥대왕으로, 539년의 천전리서석 追銘에는 ‘另卽知太王’으로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535년 이후 법흥왕은 대왕으로 불렸던 것이다. 이러한 대왕 칭호는 진흥왕대에서 무열왕대에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568년에 만들어진 황초령비, 마운령비와 568년 이후에 만들어진 북한산비에는 眞興大王이나 新羅太王으로 나오고, 무열왕릉비의 螭首에는 ‘太宗武烈大王之碑’라는 題額이 새겨졌던 것이다.

왕의 지위의 격상은 단순히 칭호의 격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도 왕이 대왕을 칭함으로 말미암아 왕족과 신하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고구려와 신라의 경우 대왕을 칭

---

것이 타당하다. 이 쇠열제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이다. 고국원왕이 帝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고 하면 늦어도 고구려에서는 고국원왕 대에 대왕제가 실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한 시기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대왕 칭호의 사용에 따른 지위체계의 변화를 추론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울주천전리 서석 원명과 추명에 보이는 갈문왕에 대한 표기의 변화이다.

원명에는 葛文王만 나오는데 추명에 의할 때 이 갈문왕의 이름은 徙夫知였다. 그는 立宗으로서 진흥왕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추명에 의하면 을사년(525)의 일을 기록할 때는 사부지갈문왕이라 하였지만 정사년(537)의 기사에는 “丁巳年王過去 其王妃只沒尸兮妃愛自思”에서 보듯이 왕으로, 그의 부인은 왕비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기미년(539) 기사에는 “己未年七月三日 其王與妹....此時共三來 另卽知太王妃夫乞支妃 徙夫知王子郎”이라 하여 사부지는 왕으로, 그의 아들 深麥夫知(多麥宗)는 王子로, 법흥왕은 另卽知太王으로, 그의 부인은 ‘另卽知太王妃’로 표기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525년까지는 사부지는 갈문왕으로 불렸고, 537년 이후에 와서 그는 왕으로, 그의 부인은 왕비로, 아들은 왕자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왕은 법흥왕이다. 법흥왕은 540년에 죽었으므로 539년까지는 살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왕실 사람들이 사부지 갈문왕을 왕으로 불렀다면 동시에 2명의 왕이 존재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사부지가 왕으로 불린 시기가 525년에서 537년 사이라는 점이다. 이 사이에 법흥왕은 535년에 성법흥대왕으로 격상되었다. 법흥왕이 대왕으로 격상되면서 왕비도 추명 6행에 ‘另卽知太王妃夫乞支妃’에서 보듯이 太王妃로 불렸다. 이는 왕이 대왕으로 격상되면서 국가와 왕실의 칭호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사부지 갈문왕도 대왕 치하에서 제후왕적인 성격의 왕으로, 그 부인은 왕비로, 아들은 왕자로 불린 것이 아닐까 한다.

추명에 보이는 왕의 존재를 대왕 체제 하의 제후왕적인 존재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이해는 백제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백제는 근초고

왕대에 이미 대왕을 칭하였고 이 대왕체제 하에서 왜왕을 제후왕으로 관념하였다. 그런데 어떤 제도이든 국내에서 먼저 시행한 후 타국에 적용된다. 따라서 倭國王을 諸侯王으로 관념하였다는 것은 백제 국내에서 이미 제후왕제가 실시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송서』 백제전에 백제 개로왕이 자신의 신하를 左賢王, 右賢王으로 임명하였다는 것, 『남제서』 백제전에 동성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왕·후의 작호를 假授한 것, 『일본서기』 應神紀의 酒君과 翁략기의 軍君의 존재에서 확인되는 ‘君號制’ 등을 해명하는데<sup>31)</sup> 단서가 될 것이다.

## 6. 창녕비의 大一伐干과 봉평비의 下干支

### 1) 大一伐干과 非常位

창녕비에는 隨駕 人名 가운데 屈珎智大一伐干이 나온다. 일별간은 서불한, 일별찬, 각간으로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일별간은 대각간이 된다. 『삼국사기』에는 무열왕 7년(660)에 김유신이 대각간을 받은 것이 대각간 설치의 처음인 것처럼 나온다. 그러나 창녕비에 나오는 대일별간은 진흥왕대에 이미 비상위가 만들어져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라에서 비상위의 성립시기를 새롭게 보게 하는 자료가 된다.

창녕비의 굴진지는 『삼국사기』 거칠부전에 나오는 仇珍大角浪<sup>32)</sup>과 동일 인물이다. 창녕비는 561년의 것이고 거칠부전의 연대는 551년이어서 10년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561년은 굴진지가 대일별간을 받은 시기의 하한선이 되는데 굴진지가 대일별간을 받은 시기는 551년의 대각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3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하

31) 백제의 君號制에 대해서는 김영심, 2008 「백제의 ‘군호’에 대한 시론적 고찰」 『백제연구』48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참조.

32)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전.

나는 『삼국사기』의 경우 한 인물의 연대기가 없는 경우 최종의 관등으로 그 사람의 관등을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근거하면 대각찬은 그가 최종적으로 오른 관등을 표기한 것이 된다. 둘째는 551년에 구진이 이미 대각간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는 551년에 한강 유역 회복 전투에서의 승리로 그가 대각찬의 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라면 신라에서 비상위의 운영은 551년에 이미 이루어진 셈이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신라 17관등제는 늦어도 법흥왕 7년(520)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30~40여년이 지나면서 금석문 상에 비상위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비상위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그 구체적인 시기 추정과 관련하여 필자는 법흥왕이 535년에 이미 ‘聖法興大王’으로 격상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왕이 대왕으로 격상되면서 국가제도와 권위체계에도 일정한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관등체계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국왕은 신하들에 대한 포상의 방법으로 관등을 올려주는 것이 종종 활용되었다.<sup>33)</sup> 이렇게 볼 때 법흥왕이 대왕으로 격상된 것은 큰 경사였으며 그에 따라 신하들에게는 관등 승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종래 이미 角干(一伐干)의 관등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올려줄 관등이 없으므로 大一伐干이라는 非常位를 만들어 수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게 볼 때 비상위는 법흥왕이 대왕으로 격상된 535년에서 구진대각찬이 보이는 551년 사이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sup>34)</sup> 이러한 추론이 성립된다고 하면 이는 중고기 신라의 관등제 운영 모

3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상 8년조에 “冬十月二十二日 賜庾信爲太대角干 仁問大角干 已外伊浪將軍等並爲角干 蘇判已下並增一級…” 참조.

34) 이에 대해서는 노중국, 2003 「삼국의 관등제」 『강좌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 참조.

습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 2) 下干支와 外位체계

한편 「울진봉평신라비」에는 외위의 하나로 하간지가 나온다. 신라의 외위제는 신라가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 지방에 대한 직접 지배를 하게 되면서 재지세력들의 독자성을 해체하고 이를 국가의 지배체제 내에 편제해 넣은 과정에서 성립된 것이다. 이 외위제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5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단양적성비」에 撰干支가 보이므로 550년 이전에 上干支-撰干支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561년에 만들어진 「창녕비」에 述干이 나오므로 신라의 외위제는 561년에는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창녕비」의 기사는 외위제 완성 시기의 하한선을 말해주는 것이 상한선은 아니다. 따라서 외위제 성립의 구체적인 시기를 추정하고자 할 때 주목되는 것이 「봉평비」에 나오는 하간지이다.

종래에는 봉평비 당시에는 하간지가 가장 높은 외위라는 전제 위에서 신라의 외위제는 524년 이후 561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봉평비의 하간지를 524년 당시 최고의 외위라고 할 수 없다. 봉평비의 居伐牟羅 지역은 중앙에서 奴人村으로 파악되었으므로 그만큼 신라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중이 낮은 곳의 재지세력에게 하간지를 주었다고 하면 이보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더 중요한 지역의 재지세력들은 524년 당시에 하간지 보다 높은 외위를 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라의 외위체계는 봉평비 단계에서 기본틀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투고일 : 2009.7.15      심사개시일 : 2010.2.15      심사완료일 : 2010.2.23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이난영, 1968 『韓國金石文追補』, 아세아문화사.
- 황수영, 1976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 이기백, 1977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 허흥식, 1984년 『韓國金石全文(고대)』, 아세아문화사.
- 조동원, 1985 『韓國金石文大系』, 원광대학교출판국.
-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 (고구려·백제·낙랑).  
 \_\_\_\_\_,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 (신라1·가야).  
 \_\_\_\_\_,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I (신라2·발해).
- 이지관, 199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_\_\_\_\_, 1995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_\_\_\_\_, 1999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조선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권덕영, 2002 『韓國古代金石文綜合索引』, 학연문화사.
- 임세권·이우태, 2002 『한국금석문집성(1) -고구려 1, 광개토태왕비 (해설편)』.
- 창원문화재단연구소, 2004 『한국의 고대목간』 학술조사보고 제25집.
- 국립가야문화재단연구소, 2006 『창녕 교동고분군 발굴약보고서』.
- 국립가야문화재단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단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 충청북도문화재단연구원, 2009, 『화랑의 場, 점말동굴, 그 새로운 탄생』 학술대회발표  
 문집.

### 2. 논문

- 권병탁, 1986 「청제문부자료 해설」 『민족문화연구』 7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 문경현, 1990 「영일냉수리신라비에 보이는 부의 성격과 정치운영문제」 『한국고대사  
 연구-영일냉수리신라비 특집호-』 3집, 한국고대사학회.
- 박상진, 1991 「백제 무령왕릉 출토 관재의 수종」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  
 국립공주박물관.
- 이문기, 1991 「백제 흑치상지 부자 묘지명의 검토」 『한국학보』 64집, 일지사.
- 이도학, 1991 「백제 흑치상지묘명의 검토」 『향토문화』 6집.

- 김창호, 1994 「6세기 신라 김석문의 석독」,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홍, 1995 「신라 중고기의 저습지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 『한국고대사논총』 7집,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 최맹식 · 김용민, 1995 「부여 궁남지 내부 발굴조사 개보」 『한국상고사학보』 20집, 한국상고사학회.
- 강중훈, 1999 「울주천전리서석명문에 대한 일고찰」 『울산사학』 1집, 울산대학교박물관.
- 노중국, 1999 「백제 무왕과 지명법사」 『한국사연구』 107집, 한국사연구회.
- 윤용구, 2003 「중국출토의 한국고대 유민자료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집, 한국고대사학회.
- 노중국, 2003 「삼국의 관등계」 『강좌한국고대사』 2,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 박중환, 2007 「백제 금석문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관, 2007 「백제유민 예식진 묘지 소개」 『신라사학보』 10집, 신라사학회.
- , 2007 「백제 의자왕 증손녀 太妃扶餘氏墓誌銘」 『백제학보』 창간호, 백제학회.
- 노용필, 2009 「신라의 벼농사와 수리」 『역사학연구』 36집, 호남사학회.
- 김성범, 2009 「나주 복암리 유적 출토 백제목간」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 · 국립부여박물관.
- 김상현, 2009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의 기초적 검토」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 백제학회.
- 김수태, 2009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 백제학회.
- 이기동, 2009 「문자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고대문자자료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 Abstract

### Research Topics of Korean Ancient History via Epigraph and Mokgan and Reinterpretation about the Major Contents of Epigraph and Mokgan.

Noh Choong Kook

Nowadays, besides the inscriptions engraved on metals and stones, the inscriptions engraved on earthenwares, lacquerwares, wood, and tile are also generally defined as an epigraph by the learned circles of Korean history. This blurs the original definition of an epigraph. Therefore, the writer suggests being careful about wording; only the inscriptions engraved on metals or stones should be called an epigraph. The inscriptions on wood should be called Mokgan(木簡), and the inscriptions written with a brush should be called Mukseo(墨書).

Baekje dynasty used the term 'Sujeon(水田)' to call a rice paddy. Shilla used the term 'Dab(沓)'. Dab, the letter which had been made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had become generally used in the unified Shilla period.

To call a reservoir, Shilla used the term 'Oh(塢)'. Goguryeo used the term 'To(吐)', and Baekje used the term 'Zi(池)'. However, the term 'Je(堤,隄)' had replaced all these terms after 7th century.

Generally, '此七王等', the inscriptions engraved on Naengsuribi(冷水里碑), is considered that it means seven kings. However, the writer insists that 'Deung(等)' functions as plural form, and Wang(王) means 'an honorific title(님)'. Therefore, according to his opinion, '此七王等' means 'these seven great men', not 'seven kings'.

Saribongangi(舍利奉安記) excavated from Mreugsazi(彌勒寺址) shows that Satajeokdeok(沙毛積德)'s daughter was the wife of King Mu(武王). Based on this fact, Some scholars suggest that Princess Seonwha(善花) is a fictitious figure. However, there are historical documents about the kings who had more than two wives at the same time in the ancient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writer insists that Princess Seonwha is not a fictitious figure; she was also the wife of King Mu, like Queen Sata(Satajeokdeok's daughter).

Daeilbeolgan(大一伐干) from Changnyeongbi(昌寧碑) is a special official rank to confer the noblemen who made great contribution. Changnyeongbi was made in 561 a.d.; however, it is still unknown when Daeilbeolgan was made. The writer insists that Daeilbeolgan might be made between 535 and 551 a.d.. In 535 a.d., King Beupheung(法興) was called Beupheung the Great. In 551 a.d., King Jinheung(眞興) widely expanded Shilla's territory. Many noblemen in Shilla supported the kings in these processes. Therefore, it is presumable that Daeilbeolgan was a kind of a reward program for them.

In the period of Shilla dynasty, the political influence of Uljin(蔚珍) area was not much considerable. Thus, the potentates of other areas, which had more political influence than those of Uljin, usually won higher official ranks than Haganji(下干支); These ranks were only for local potentates. Therefore, the system of official ranks, which is only for local potentates, is presumed to be made in the same period that Bongpyungbi(鳳坪碑) was made.

Key Words: epigraph, local potentates, higher official ranks, reservoir, special official rank, rice paddy, seven kings, fictitious figure